

‘저출생 전쟁 3년차’ 경북도, 도민 체감정책 속도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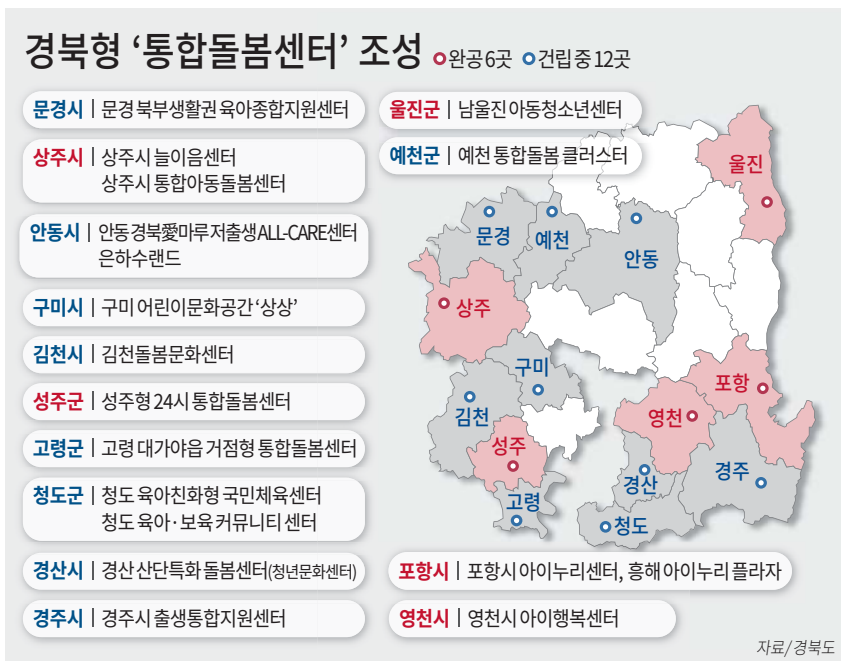
저출생 과제 120대로 재편하고
예산 400억 늘려 4000억 투입
돌봄센터 2028년까지 총 18곳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 3년 차를 맞아 2025년 한 해 동안 도민 체감형 성과를 현장에서 축적하며 가시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아이친국 육아친화 온종일 완전돌봄 실현’을 목표로 돌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형 통합돌봄센터 18개소 가운데 포항·성주·영천·울진 등 6곳은 운영에 들어갔고, 안동·경산·상주·고령·청도 등 12곳은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된다.

2025년 저출생 대응 주요 사업을 점검한 결과, 만남·출산·돌봄·주거·일생 활균형·양성평등 등 전 주기 정책 전반에서 체감 성과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책 지표와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중장기 방향도 함께 점검했다.

만남 주선 분야에서는 청춘동아리 44%, 솔로마을 59%, 칠월칠석 견우늬 만남의 날 38%의 매칭률을 기록해 70쌍, 140명이 인연을 맺었다. 2025년에는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100만



원을 가구당 지원해 563가구의 결혼 부담을 덜었다.

출산 지원은 임신 사전 가임력 검사 1만1196명, 신생아 집중치료 235명, 예비·초보 부모 행복 가족 여행 674명으로 확대됐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남성 13건을 포함해 여성 9319건을 지원했다. 임신부 대상 출산축하박스 9천 579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8558건, 콜택시 이용 5만7279건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병행됐다.

돌봄 분야에서는 K보듬6000 누적 15만229명, 아픈 아이 긴급 돌봄 3천 58명, 24시 시간제 보육 3만6967명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강화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531명, 방학 중 어린이 중식 2068명 등 틈새 돌봄도 새롭게 보완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210가구, 월세 130가구, 청년 월세 1만184명, 주거환경 개선 49가구를 지원했다. 양육친화형 공

공임대주택 726세대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700세대, K-U시티 청년 정주 공동주택 공급도 이어가고 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돌봄 연계 일자리 편의점 매칭 351명, 출산 소상공인 대체인력 215명, 육아기 단축 근로 급여 보전 205명, 다자녀 출산 능가도 우미 1000회, 출산 농가 영농 도우미 70명을 지원했다.

경북도는 2026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저출생 과제를 150대에서 120대로 재편하고, 전년보다 400억원 늘어난 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AI 돌봄 정책은 보급·실증·국책사업화의 3단계로 추진해 2월부터 돌봄 시설 10개소에 AI 돌봄 로봇 100여 대를 시범 도입한다. AI 스마트 돌봄 실증 거점 연구를 통해 국가 공모사업과 대형 프로젝트 연계도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인 유입, 고령사회, 청년정책을 아우르는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저출생정책평가센터와 경북 협의체를 통해 정책 효과를 지속 점검한다.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유치와 APEC 인구정책 포럼 등 국제회의도 추진해 글로벌 협력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봉화군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총력

봉화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나섰다. 군은 23일 사업 보고회를 열고 총 60건, 176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전략적 대응을 예고했다.

군은 군청회의실에서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는 주요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60건, 약 1760억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발굴했다.

/봉화(경북)=손기섭 기자

경남도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확대

경남도는 장애인과 임신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바우처 택시를 확대 운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약자가 일반 택시 이용 시 요금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바우처택시는 병원 진료와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남도는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69% 늘린 75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 차량도 기존 994대에서 1066대로 72대 증차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북권기금은 북권 사업 재원 중 수익금 35%의 17.267%를 시도에 배분하는 것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하동군

외인 근로자 ‘한국어학당’ 운영

하동군은 농·어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정착과 소통을 위해 ‘2026년 하동 한국어학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어촌 지역 고령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확대·정착되면서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들이 하동군에 체류하고 있다.

많은 근로자가 기초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근무 현장에서 업무 지시 이해, 안전사고 노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동군 가족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언어·문화적 장벽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전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6일부터 지역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역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에는 최대 720만원,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7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주(전북)=김종철 기자 kji7219@

‘동남권 5극3특’ 성장엔진 논의

산업통상부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울산시, 지역 주력 산업 중심 건의

울산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울산시를 찾아 동남권 5극3특 성장엔진 산업군 선정과 관련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동남권을 중심으로 성장엔진 산업군 선정 방향과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부와 동남권 시도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 협의의 장으로 진행됐다.

23일 오전 10시 울산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정관 장관,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부산·경남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5극3특 성장엔진 협력과 지역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주요 논의 사항은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 ▲성장엔진 후보 산업군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이었다.

울산시는 조선·미래자동차·차세대 에너지·첨단소재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울산시청.

/울산시

중심으로 한 동남권 성장엔진 지정을 건의했다. 대규모 기업 투자가 진행 중인 산업군에 대해 지역 수요 기반 정책 반영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세계 경기 둔화와 산업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 이동수단 산업의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전주기 전환을 통한 산업 체질 고도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도 요청했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함양군, 체납 징수율 66%… 경남도 1위

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등 효과

함양군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 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체납 징수율 65.9%를 기록하며 경남도 내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 평균 체납 징수율 33%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적극적인 체납 관리와 징수 역량 강화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함양군은 2025년 이월 체납액 19억 3700만원 중 12억 7700만원을 징수했으며 총 1만 1799건의 체납을 정리했다. 고액 체납자 징수액은 3억 5000만 원을 달성했다.

군은 이번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체납 유형

별 맞춤형 징수 추진, 전화·우편·현장 중심의 체납 안내 강화를 제시했다.

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채권 압류,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의 분할 납부 유도과 사후관리 체계화도 효과를 거뒀다. 체납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 안내와 관리로 장기 체납 전환을 최소화하며 징수 효율을 높인 것도 주효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 징수율 1위 달성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공정한 조세 행정 구현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결과”라며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안내 등 납세자 보호를 병행하는 책임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주엑스포대공원, 작년 54만명 찾았다

경북문화관광공사, 민간협력 성과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경주엑스포대공원이 민간협력콘텐츠 운영을 본격화한 이후 2025년 한 해 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관광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의 2025년 전체 입장객 수는 5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46만 명, 2024년 51만 명에 이어 해마다 증가한 수치로, 개장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콘텐츠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 협업 콘텐츠를 목적으로 방문한 행사 목적객은 약 7만5000명으로, 전년 5만4000명 대비

39.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민간콘텐츠 운영 성과는 체류형 관광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외부 방문객 가운데 40.6%가 경주에서 숙박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사는 EX-호러 등 시즌별 대표 콘텐츠를 중심으로 야간 프로그램을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성수기 기간 입장객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이러한 운영 성과를 토대로 2026년에도 민간콘텐츠 중심의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2026 미래 부산 디자인단 밋업데이’ 개최

시민 참여 기반 디자인 문화 확산

부산시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2026 미래 부산 디자인단 밋업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의 주제인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Inclusive City, Engaged Design)’을 실현하고 시민 참여 기반 디자인 문화

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 부산 디자인단과 우리 동네 디자이너 등 2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방안이 공유됐다.

시는 디자인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일상이 바뀌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 프로젝트로 단계적 운영할 방침이다.

/부산=이도식 기자